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션 8,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사도행전, 참여, 요한 복음

© 2024 로버트 피터슨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사도행전, 참여, 요한 복음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요한 복음과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한 공관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처음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님의 백성의 동일시,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과 교회에 성령을 부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통합, 이는 오순절과 그 결과와 매우 관련이 있고, 누군가를 교회에 취임시키는 기독교 세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참여는 예수의 이야기의 반복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를 사용한 데서 예상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참여적 측면은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주요 장소, 즉 교회 생활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곳과 누가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구절을 사용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데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두 권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데니스 존슨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책, *구속사에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뛰어나고*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크-사도행전은 단위입니다. 데니스 존슨은 사도행전의 해석적 열쇠 중 하나가 루크 복음이라고 지적합니다. 루크와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이야기와 초기 교회의 이야기 사이에 중요한 연결을 그리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고려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연결은 초기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 면에서 누가복음에서 들려진 예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교회의 평행이 누가의 문학적 의도의 일부임을 시사하는 구조적 표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와 교회 사이의 평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그냥 언급하고 돌아가서 기록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면 넷째, 유대교 지도부의 박해를 줄이는 반대가 생깁니다. 첫째, 누가 복음과 예수의 삶에 대해, 누가 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을 봅니다. 누가 복음 3장 21-22절. 이제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당신과 함께,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는 누가 복음의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관습대로 일어서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펴서 기록된 곳을 찾았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었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앉아서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성경이 오늘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누가복음에 의해 설정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죠.

그런 다음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구약 예언에 따라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봅니다. 누가 복음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방에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4:18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그리고 한 곳 더, 누가복음 10:21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읽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그것이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지식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이 구절이 더 전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루가 복음서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셨으며, 루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볼 수 있으며, 주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루가 복음 9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합니다(루가 복음 9장 22절). 그런 다음 실제 계략은 루가 복음 22장 1절과 2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무교절이 다가왔고, 이는 유월절이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어떻게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를 다루신 방식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관찰한 예수님의 삶에서와 같은 네 가지 패턴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삶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누가복음 2장, 즉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삶에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기록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불, 성령이 새롭고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와 빛의 쇼를 하시고, 바람이 몰아치고 불의 혀가 제자들 위에 머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그가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취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지만,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고 있는데, 그는 요엘 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누가복음의 패턴이 교회의 삶에 대한 사도행전의 패턴으로 재현됩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고, 교회는 기름부음을 받고, 바로 이어서 그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반의 설교일 것이고, 그는 요엘을 인용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는 33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32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높이시어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셋째,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고, 교회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항상 언급되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성령은 4:8에서처럼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환호를 받고 그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8.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우리가 오늘 불구자가 행한 선행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4:31에서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한 후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4:31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그 후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온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과 혼동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와 매우 역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나타날 때에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3, 같은 구절에서 그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단어, 동사 나타나다를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해 놀랍게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음, 기름부음을 설명하는 설교, 성령 안에서 효과적인 사역, 그리고 네 번째, 물론 사도행전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대와 박해로 가득 차 있고, 사도행전 4:17과 18보다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박해는 믿을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4:17과 18에서 산헤드린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는 이 메시지는 더 이상 그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강하게 박해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흠으시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어 사도행전 1:8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교회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여러 지점에서 예수는 베드로, 스테반, 바울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러한 평행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반영한 스테반의 죽음의 말씀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소리쳤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스테반은 말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테반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니,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과 유사한 것을 봅니다. 우선, 누가복음 9:51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결심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을 때, 누가복음 1장처럼 들리는데, 그의 승천은 승천을 위해 요청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그가 자신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세상의 죄와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점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스테반, 바울의 삶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몇 가지를 예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더 큰 요점의 일부이며, 예수 이야기의 반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니지만,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20:22에서 바울은 밀레투스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영에 의해 억눌려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21:13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갇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그를 만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로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복제를 통해 어떻게 참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의 이야기의 측면을 반복했습니다. 이 참여는 교회가 제자도와 사명에서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초기 교회의 삶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은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특히 그의 고난과의 교제를 통한 일종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지적합니다. 이 참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정확히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타적 성격을 약화시키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참여 주제에 대해 요한과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신성한 기초의 일부로 언급한 것처럼, 누가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구절을 사용한 데서의 참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구약의 기초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구절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종의 노래는 예수를 언급하면서 언급되는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인용됩니다.

다시 한번, 이 패턴은 예수의 삶, 교회의 삶, 그리고 이 경우 사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은 유아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라고 맞이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9:6에 대한 암시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사야 49 :6을 인용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읽어보고,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흥미롭습니다. 시므온은 첫 부분만 인용합니다.

루크는 사도행전에서 전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6,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입니다. 이제,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므온은 이 말씀의 첫 부분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 이 아기는 이방인들,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 될 것이며, 이사야 49:6을 암시한다. 사도행전 13:47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사자인 자신들에게 명령으로서 같은 구절을 호소한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군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돌아왔을 때 질투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반대하는 군중을 선동했고, 그 결과 그들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돌아섰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유대인인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제쳐두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돌아선다, 행 13:46.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오게 하였노라-이사야 49:6의 두 번째 부분을 더 자세히 인용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영생에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므온이 내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 한 것과 같은 구절에 호소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빛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확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아들과의 관계로 싸여 있습니다. 둘째, 사도행전의 계획적 구절인 사도행전 1:8은 예수와 그의 백성 사이의 더 많은 연결을 암시하기 위해 종의 노래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므온이 사도행전 49:6을 인용할 때 마지막 구절인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 생략된 반면,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구절을 이어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데니스 존슨은 "하인의 노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암시는 땅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표현인데, 이 인용문에서 가까운 인용문은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본, 이사야 49:6의 독해와 언어적으로 동일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 1:8에서 이 인용문을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교회를 통한 예수의 사명을 확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빛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그 빛을 땅 끝까지 가져갑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은 모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그림을 성취합니다. 교회는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구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에 계속 참여하는 한 그 그림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의 독특성을 확인합니다. 오직 그의 고난만이 죄를 속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죄를 속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사역에서 고난에 대해, 예수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속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같은 주제가 울려 퍼지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고난의 일부를 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와 연합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구속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부르심을 추구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제안할 참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오히려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17.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문맥상,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17. 사도행전에 대한 결론은 구약과 공관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통합, 동일시, 통합, 참여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선행 조건, 즉 구속적 역사적 선행 조건을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의 그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서 그 교리를 설명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고, 구원의 내적 작용도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연합을 위한 구속적 역사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즉, 오순절은 성령을 통한 세례와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교회의 삶에서 제정된 연합의 실체를 제공하고, 특히 바울의 회심에서 동일시를 통한 연합 개념의 추가 형성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가장 큰 박해자를 가장 큰 지지자로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옹호자였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 그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의 모든 서신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심지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부름을 받은 자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그는 사도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현현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바울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지만, 사도행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연합 교리를 정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연합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장르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리 서신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대한 서사였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는 것이지, 로마서가 근접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때, 장르, 초기 교회 서사,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는 목적,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전체의 일부로서의 맥락에서, 우리는 연합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선교적 단계에서 실행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살 때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특히 박해를 위해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한 형태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를 알고, 빌립보서 3장,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며, 분명히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시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와 동일시되고, 개별 신자는 세례, 통합, 오순절,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에 응답하면서 영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신약 교회의 탄생일 때 예수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행전에서 개략적으로 재현된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구약, 공관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탐구하거나 기초를 놓은 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실제 연합으로 넘어가고, 신약에서 매우 다른 두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오, 그것은 바울과 요한의 복음서 외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에는 요한 복음에 비추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본문과 신약의 다른 책에도 몇 가지 구절이 있지만 요한과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 복음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과 바울은 연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관용어, 매우 다른 관용어, 다른 어휘, 다른 강조점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겹칩니다. 저는 우리가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이끌어낼 다섯 구절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의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면서 자세한 구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셋째,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포도나무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가지입니다. 다섯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입니다.

5개의 구절. 예수의 생명의 떡 담화, 요한복음 6장.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요한복음 10장.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그리고 그들과 믿는 이들, 요한복음 14장.

예수는 포도나무, 믿는 자들은 가지, 요한복음 15장.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 요한복음 17장. 첫째, 예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담화, 요한복음 6장. 여기에 구절이 있습니다: 32~35, 40~41, 40~41, 38~58.

예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담화, 요한복음 6:32~35, 48~58.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맥락에서 합일을 제시합니다.

표징과 설교로, 네 번째 복음서에서 드물지 않게 조합된 표징과 설교로, 예수는 자신을 하늘에서 온 빵으로 묘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줍니다. 모두가 배불리자, 제자들은 남은 빵 조각이 담긴 열두 바구니를 모읍니다.

이것이 배경이다. 이것이 표적이며, 이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기적에 대해 말한 단어이다. 예수가 같은 것에 대해 주로 사용한 단어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표징이 있습니다. 빵과 물고기의 증가,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요한은 이 표징, 이 기적을 메시지와 연결해서 설교와 표징이 함께 가도록 합니다. 하늘에서 온 만나.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구약의 구원 역사와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은 많은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빵과 생선을 늘리신 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표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 시대 의 사람들은 예수께 만나를 연상시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요 6:31). 이것은 느헤미야 9:15에서 인용한 것으로, 광야 여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78:24, 25, 시편 105:40의 언어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31은 느헤미야 9:15, 시편 78:24, 25, 105:40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6:32와 33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위대한 기적을 대체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 떡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시니라 요한 복음에서 관례대로 그들은 예수를 오해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느니라

그들은 끊임없는 뷔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기적인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요한의 스타일의 특징 중 하나, 요한의 스타일의 12가지 특징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예수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물리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오해합니다. 때때로, 이것과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때때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는 거의 항상 있습니다. 요한복음 20:30, 31에 있는 요한의 목적 진술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들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인물들을 대체합니다. 그는 인물, 제도, 사건을 대체합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신을 대체합니다.

나는 다음 날까지 이스라엘의 육체적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채워주었다. 하지만 육신이 된 말씀은 세상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준다. 다시 한번, 나는 오해를 지적했고, 35절은 의미가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빵이 배고픔을 해소하듯이,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은 모든 신자를 영적으로 충족시킵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우리는 구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에 대한 파노라마를 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서 그에게 와서 믿는 것과 비교를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나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곧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는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원망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했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신가요?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원망하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기록되었나니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외에는 없느니라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로다.

이 구절에서는 구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에 대한 파노라마가 제공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복잡하고 아름답고 약간 더 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사도행전, 참여, 요한 복음입니다.